

신안 흑산도 세계인 찾는 'K관광 섬'으로 거듭난다

문광부 육성사업 공모 선정
2026년까지 120억원 투입
자산어보 테마마을 조성 등
관광·K-컬처 융합 사업 추진

신안 흑산도가 세계인이 찾는 가고 싶은 섬으로 거듭난다. 신안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K-관광 섬 육성사업'에 흑산도가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120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K-관광 섬 육성사업'은 휴양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추세에 맞춰 저밀도·정정 관광지인 섬에 관광과 K-컬처를 융합하고 지역주민이 함께해 매력적인 섬으로 특화하는 사업이다. 신안군은 공항건설이 가시화되는 흑산도를 대

상으로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역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공모사업에 신청해 선정됐다. 흑산도는 우리나라 최초 해양학 연구서인 정약전의 '자산어보'가 탄생한 섬이자 바다 위에서 고래를 거래하던 시장인 '파시'가 번성했던 곳이다. 자연환경과 문화, 어업유산을 활용한 흑산도의 사업은 '자산어보 흑산도'란 사업명으로 ▲자산어보 테마마을 조성 ▲파시 관광자원화 ▲클린에이스 흑산 ▲고래와 쉬어가는 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흑산도는 자연환경과 문화가 풍부한 한국해양문화의 보고인 섬으로 퍼플섬에 이어 세계인이 찾는 가고 싶은 K-관광 섬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흑산도는 지난 1월 흑산공항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예정부지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되면서 연내 착공이 기대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흑산도가 'K-관광 섬 육성 사업'에 선정돼 세계인이 찾는 가고 싶은 섬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름다운 섬 흑산도 전경. <신안군 제공>



문화재청이 최근 무안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확정했다. 해제면 무안항도 갯벌랜드 전경. <무안군 제공>

무안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문화재청 분과위 심의 확정
무안갯벌이 문화재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다. 무안군은 최근 열린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심의에서 무안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제면·현경면 일원에 있는 무안갯벌은 지난 200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갯벌습지보호지역 제1호로 지정됐다. 2008년에는 랍사르습지에 등록되고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무안갯벌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생

물인 흰발농게, 대추귀고둥이 살고 있다. 250종의 저서(底棲)생물, 칠면초·갯잔디 등 56종의 염생식물, 흑부리오리·알락꼬리마도요 등 52종의 철새들이 찾는 곳이다. 문화재청 잠정목록 등재 이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는 우선등록목록 선정, 예비 심사, 등재신청 후보 및 등재신청 대상 선정 등 국내외 절차들이 남아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세계유산 추진단과 긴밀히 협조해 무안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완수하고 지역의 가장 중요한 자연 자원인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신안군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 '우수 A등급'

전국 기초단체 민선 8기 평가
신안군이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80여 일간 진행했던 '2023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 A등급(우수)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과 전망, 연차별 이행정사진과 재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실명서를 작성, 공개하는 것을 평가항목과 동시에 보완점을 진단하는 사업이다. 평가항목은 각총성(60점 만점), 민주성(25점 만점), 투명성(15점 만점), 공약 일치도(Pass/Fail)다. 평가방식은 평가항목에 따른 35개의 세부 지표별로 평가하는 절대평가로 진행해 총점 9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80점 이상은 A등급, 이하 B·C·D 등급으로 선정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선 8기 공약 이행평가 단과 함께 지속해서 평가하고 보완해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우량 군수는 지난해 8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 부분) 약속 대상' 선공보 분야에도 우수상에 선정됐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군의회 "원전세 감소 지방세법 개정 반대"

영광군의회가 원자력 발전소가 내는 세금을 인접 지역과 나눠 받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18일 임시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불공정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 영광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원전 소재지의 지역 자원시설세를 침탈하는 일방적 법률 개정 추진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원자력 발전소의 납세 지역을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교부금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빛원전은 발전량 1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에 납부하고 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영광군에 내는 지역자원시



국회는 영광군을 포함한 원전 소재 지자체와 합의 없는 일방적 법률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3. 4. 18(일) 영광군의회
설세는 1kWh당 1원으로 유지하되 인근 지자체에도 1kWh당 0.5원을 납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75%를 원전 소재지와 비상계획구역 지자체가 골고루 받고, 나머지 25%를 광역자치단체가 가져가는 내용이다. 영광군과 의회는 두 개정법안이 통과하면 세수 감소가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목포해수청, 완도해역 항로표지 시설 야간 특별점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낚시객이 많이 찾는 완도해역의 안전한 항행 여건 조성을 위해 항로표지 시설 야간 특별점검을 한다. 완도해역은 5월을 기점으로 낚시어선의 통항량이 급증하고 부산에서 목포로 가는 주요 항로로 충돌사고 위험이 높아 선박의 좌·우 통항을 분리해 운항하도록 하는 통항 분리수역으로 운영 중인 곳이다. 야간 특별점검에서는 항로의 중앙선 역할을 하는 '통항분리등부표(23기)'의 동기점멸 기능과 등부표의 위치이동 여부, 등명기의 밝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등명기 등의 기능이 발견되면 선박 운항 안전성을 고려해 점검에 투입한 항로표지선(해양2호)과 점검인력이 현장에서 즉시 정비하거나 신제품으로 교체해 기능을 복구할 계획이다. 정문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해자와 같은 눈높이로 항로표지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해상교통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협력사 외국인 근로자 대상 현대삼호중 '한국어 교실'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최근 수주 현황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 지원에 나섰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사내 협력사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20일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 기술교육원이 지난 14일까지 한국어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베트남·네팔·우즈베크·태국·러시아 등 5개국 외국인 근로자 500여명이 신청했다. 지난 18일 시작된 교육<사진>은 오는 7월 6일까지 주 2회씩 총 12주간 이뤄진다. 기술교육원에서 실시되는 집합교육과 함께 영상자료를 배포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진행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번 교육 수료 후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 사항을 피드백 받아 차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 참석률 및 성적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동기와 수강 의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